

##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추이의 유형 및 예측 요인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ypes and Predictors of Trajectories of  
Adaptation to Child Care Among Infants and Toddlers: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and Latent Classes Analysis

신나리<sup>1</sup> 조우리<sup>2</sup>

Nary Shin<sup>1</sup> Woori Jo<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underlying typ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aptation to child care among infants and toddlers. This study also aimed to identify latent classes in their child care adaptation types in order to find predictors that account for individual differences.

**Methods:** Participants were 420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123 teachers. The levels of child care adaptation of participating infants and toddlers were rated monthly from early April to June,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growth trajectories of child care adaptation showed there were two to four latent groups by dimension of child care adaptation. Also, the groups of individual dimensions of child care adaptation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classes, which were ‘complying and positive group’, ‘negative group’, and ‘individualized group.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s age, gender, and temperament differentiated the three latent classes of adaptation to child care.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s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at infants and toddlers possess should be prudently considered in order for successful adaptation to child care.

**key words** infants, adaptation to child car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Growth mixture modeling, Latent class analysi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8S1A5A2A01028830).

#### <sup>1</sup> 제1저자(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 <sup>2</sup> 공동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생

## I. 서론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과거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전면개정,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보육교직원의 국가자격 및 평가인증과 같은 질제고 제도 도입, 표준보육과정 도입,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 등은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전환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법령 및 제도의 발전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특히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2년 무상보육의 대상이 영아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록 영아 수가 0세 126,793명, 1세 319,016명, 2세 397,955명으로(보건복지부, 2019),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2세의 경우는 해당 연령의 주민등록인구가 422,110명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9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개별적인 보호와 정서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영아기의 특성상 어머니로 대표되는 주양육자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양육 환경이 어린이집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양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아들의 주된 발달 과업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적응이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으로(신희남, 조복희, 2012),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자신의 생활방식이나 습성을 맞춤으로써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강정원, 2002). 따라서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격한 부정적인 정서표현 없이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분리하고, 새로운 주양육자인 교사와 적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급·간식과 배변, 낮잠 등의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명순 등, 2013). 그러나 발달상 가정 환경에 익숙한 영아가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어린이집을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고, 어머니와 떨어져 장시간 일과를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영아보육 연구에서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적응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볼 때,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영아가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학기 중 단발성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연구 중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일부 영아나 학급을 관찰하거나 면담함으로써 적응의 흐름이나 적응 과정 중의 경험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구수연, 2005; 김현주, 2011; 우현경, 홍용희, 1998; 이용주, 2004; 차영숙, 2009; 최정선, 정가운, 2013; Cryer et al., 2005; Datler, Erekly-Stevens, Hover-Reisner, & Malmberg, 2012; Thyssen, 2000), 양적 연구 중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영아의 적응 수준이 어떠한 추이로 변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영아가 등원을 시작하는 시기의 행동 특성부터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행동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간 종단자료를 이용한 통계적인 기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가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초기치의 평균 및 변화율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여 변화 추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Hedeker, 2004). 그러나 모든 영아의 어린이집에 적

응하는 수준이 동일한 추이로 변화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영아가 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궤적으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집단 내에서 상이한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변화 패턴이 유사한 집단끼리 묶어 이질적인 성장곡선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구분하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사용하여(서민정, 김경연, 2010), 학기 초부터 중반에 이르는 개별 영아의 적응 추이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추이는 기본생활습관부터 일과와 집단생활에 대한 적응, 놀이 및 활동에 몰입하는 특성,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수준, 어린이집에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등 복합적이므로,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신나리, 윤현정, 2016). 그러나 하위차원별로 파악되는 적응 추이는 개별 영아의 적응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하위차원별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개별 영아가 어떠한 유형의 적응에 해당하는지를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es)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학기초부터 어린이집 적응 과정을 추적하여 종단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반의 적응 프로그램은 통상 2주까지 진행되므로(김명순 등, 2013), 적응 프로그램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4월 1주차부터 한 달 간격으로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3회 반복측정하여 개별 영아의 적응에 대한 단기종단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궤적이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별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적응 수준이 변화하는 데에는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영아의 개인적 특성 중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질을 들 수 있다. 기질을 초기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것은 기질을 통해 영아의 반응 양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 양식이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에 해당한다(Fox & Henderson, 1999). 이는 기질의 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반응 양식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수준이 영아의 기관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행동 특성이기 때문이다(Marcus, Chess, & Thomas, 1972; Parker-Cohen & Bell, 1988). 실제로 순한 기질의 영아에 비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행동을 보여(이찬숙, 현은자, 2008; 천희영, 1997), 반응 강도와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규칙성과 사회성이 낮은 아동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기홍, 이주리, 2010; 서소정, 2009;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신희남, 조복희, 2012; 이상순, 이완정, 2019; 장영숙, 조정애, 2000).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과 기관 적응을 교사가 모두 평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장영숙, 조정애, 2000; Klein, 1991; Mobley & Pullis, 1991). 따라서 타당한 기질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적응 측정자와 기질 측정자를 다르게 함으로써, 동일한 평정자에 의해 측정되는 두 변인 간 존재 가능한 체계적인 변량을 배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또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우울이다.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적응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간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다(김기홍, 이주리, 2010; 김연진, 2005; 서소정, 2009; 유민아, 이주리, 2011; 최항준, 최선녀, 임현주, 2013). 특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감은 민감하고 적절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자녀의 적응적 및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대표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Matesic, von Stauffenberg, Mohan, & Kirchner, 2007). 그러나 그간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기관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유아기 이후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김정민, 김지현, 2015; 이연실, 이용우, 2016; Kim, 2017). 따라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 수준에 따라 영아기 자녀가 어린이집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아의 적응에 가장 의미있게 기여하는 특성으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한 영아가 다른 관계 또한 수월하게 맺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기초한다(Bretherton & Waters, 1985). 특히 애착의 개념이 영아와 애착 대상 간의 강렬하고 지속적인 애정적 결속이라는 점에서 영아가 형성하는 애착 이외에 애착 대상인 주양육자,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감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김기영, 2000; 김한나, 서소정, 2012, 신현정, 박영주, 강현철, 2004; Becker & Becker, 1994). 이에 영아기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분리불안이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왔다(김영실, 손수민, 2014; 송애란 등, 2015; 양숙경, 문혁준, 2010; 유현숙, 고선옥, 2009). 그러나 Bowlby의 애착 이론 이후 접근 추구나 접촉 유지 등의 영아의 애착행동이 주양육자에 대한 어린 자녀의 의존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또한 병리적인 관계의 선상에서 인식되기 보다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황현주, 정옥분, 2006; Hock, McBride, & Gnezda, 1989). 특히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와 이에 따른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영아기 자녀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형성한 애착이 대리양육을 시작하는 영아의 적응적 행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 결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련한 국내 연구 중 0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김현주, 고경필, 2015). 그러나 취업모의 증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0세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구조적 질에 해당하는 변수는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인 보육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바(김현주, 고경필, 2015;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아 자신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과 함께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추이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적응이 새로운 발달상의 과업으로 대두되는 학기 초의 적응 과정을 추적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아 개별적인 변화 추이가 유사한 집단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개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 가능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형화된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을 영아의 기질, 어머니와의 애착과 어머니의 우울이 설명하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각 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적응 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들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변화 궤적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변화 궤적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4.** 영아의 기질, 어머니와의 애착 및 어머니의 우울은 어린이집 적응 추이의 잠재계층을 설명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0세~2세반에 재원 중인 영아 420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영아 애착이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가족구조 상 부자가정과 조손가정은 제외하여, 일반가정 또는 모자가정의 자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도시인 서울과 세종, 경기도의 1개 중소도시, 충북의 1개 중소도시와 3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32개소에서 모집되었다. 영아반 재원 가정에 총 634부의 동의서와 어머니용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422부가 회수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에 한해 123명의 담임교사가 영아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고, 총 42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인 영아의 연령은 1세와 2세가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남아 52.6%, 여아 47.4%로 남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42.6%로 가장 많았고, 둘째 36.2%, 셋째 이상 10.5%, 첫째 10.2%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현원 이용여부는 재원아가 45.7%, 신입원아가 54.3%로 약간 더 많았고, 평균 현원 이용기간은 12.5개월이었다. 타원 이용여부는 없음 85.0%, 있음 15.0%로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형제가 재원 해 있는 경우 24.0%, 재원한 형제가 없음 76.0%로 나타났다. 해당 영아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87.6%로 가장 많았고, 기타 7.5%, 아버지 4.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아버지 38.3세, 어머니 35.6세로 아버지의 연령이 조금 더 높았고, 학력은 4년제 졸업이 아버지 49.0%, 어머니 47.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이 64.0%로 미취업 36%보다 더 많았고, 아버지는 직업은 사무직이 46.7%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교사는 평균 35.4세였고, 보육교사 경력은 61개월, 그중 영아반 교사 경력은 평균 39.3개월이었다. 해당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평균 4.4명으로 보고되었

으며, 복수담임제로 운영되는 반이 66.7%로 단독담임의 비율(33.3%)보다 높았다. 보육연령에 기초한 반편성은 1세반이 47.2%로 가장 많았고, 2세반 36.8%, 0세반 19.5%, 0·1세 혼합연령반 4.1%, 1·2세 혼합연령반 2.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시설이 52.0%,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미지원시설이 48.0%였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구분	n(%) 또는 M(SD)	구분	n(%) 또는 M(SD)
아동 (N = 420)		아버지 (N = 412)	
월령		연령	
12개월 미만	28( 6.7)	20대	11( 2.6)
12~24개월 미만	179(42.6)	30대	271(64.5)
24~36개월 미만	175(41.7)	40대 이상	130(30.9)
36개월 이상	38( 9.0)	학력	
성별		고졸 이하	75(17.8)
남	221(52.6)	2,3년제 졸업	74(17.6)
여	199(47.4)	4년제 졸업	206(49.0)
출생순위		대학원 이상	58(13.8)
외동	179(42.6)	직업	
첫째	43(10.2)	사무직	196(46.7)
둘째	152(36.2)	관리·전문직	77(18.4)
셋째 이상	44(10.5)	서비스·생산·노무직	90(21.2)
현원 이용여부		전업주부·무직·기타	49(11.6)
재원아	192(45.7)	학력	
신입원아	228(54.3)	고졸 이하	75(17.8)
현원 이용기간(개월)	12.5( 5.2)	2,3년제 졸업	74(17.6)
타원 이용여부		4년제 졸업	206(49.0)
있음	63(15.0)	대학원 이상	58(13.8)
없음	357(85.0)	직업	
타원 이용기간(개월)	8.5( 3.8)	사무직	196(46.7)
재원형태 여부		관리·전문직	77(18.4)
있음	101(24.0)	서비스·생산·노무직	90(21.2)
없음	319(76.0)	전업주부·무직·기타	49(11.6)
주양육자		교사 및 학급 특성 (N = 123)	
부	20( 4.8)	교사 연령	35.4( 9.3)
모	368(87.6)	교사 경력(개월)	61.0(54.7)
기타	32( 7.5)	교사 영아반 경력(개월)	39.3(35.2)
어머니 (N = 420)		교사 대 영아 비율	4.4( 1.7)
연령		교사 구성	
20대	21( 5.0)	단독담임	41(33.3)
30대	331(78.8)	복수담임	82(66.7)
40대	68(16.2)	담당 연령	
학력		0세반	24(19.5)
고졸 이하	81(19.3)	1세반	58(47.2)
2,3년제 졸업	97(23.1)	2세반	33(36.8)
4년제 졸업	198(47.1)	0·1세 혼합연령반	5( 4.1)
대학원 이상	44(10.5)	1·2세 혼합연령반	3( 2.4)
직업		기관 설립 유형	
취업	269(64.0)	정부지원시설	64(52.0)
미취업	151(36.0)	미지원시설	59(48.0)

주. 아버지 특성은 무응답 사례가 제외된 수치임.

## 2. 측정도구

### 1) 영아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신나리와 윤현정(2016)이 개발, 타당화한 ‘교사용 영아 어린이집 적응 척도(Childcare Adaptation Scale for Infants and Toddlers: CASIT)’를 사용하였다. CASIT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도구로, ‘일과 중 교사의 지시나 요구를 잘 따른다’ 등의 집단생활적응, ‘다른 영아들을 방해한다’ 등의 부정적 행동, ‘또래나 교사에게 애정표현을 한다’ 등의 긍정적 정서, ‘중간에 잘 깨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 자는 편이다’ 등의 규칙적 기본생활, ‘놀이나 활동을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 등의 활동성/흥미, ‘친숙한 또래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한다’ 등의 또래상호작용의 6개 차원,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발달 및 행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영아의 특성상 응답일을 기준으로 2주간의 행동에 대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단연구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판단해야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에 적응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1차 조사는 집단생활적응 .93, 부정적 행동 .89, 긍정적 정서 .90, 규칙적 기본생활 .72, 활동성/흥미 .82, 또래상호작용 .81로 나타났고, 2차 조사는 집단생활적응 .92, 부정적 행동 .89, 긍정적 정서 .90, 규칙적 기본생활 .72, 활동성/흥미 .82, 또래상호작용 .84로, 3차 조사는 집단생활적응 .93, 부정적 행동 .88, 긍정적 정서 .90, 규칙적 기본생활 .65, 활동성/흥미 .85, 또래상호작용 .81로 나타났다. 규칙적 기본생활 습관의 신뢰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 2) 영아 기질

영아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기질 척도인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EAS) 기질 척도를 한국아동패널(n.d.)에서 수정, 변안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부모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EAS는 ‘우리 아이는 잘 운다’ 등의 아동의 부정적 정서 수준에 해당하는 정서성(emotionality),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등의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활동성(activity),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등의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성향에 해당하는 사회성(shyness/sociability)의 3개 하위차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AS는 여러 문화권에 걸쳐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를 대상으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척도로(Boer & Westenberg, 1994; Bould, Joinson, Sterne, & Ricardo, 2013; Mathiesen & Tambs, 1999),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활동성 및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정서성 .73, 활동성 .79, 사회성 .8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영아 애착

어머니-영아 애착은 황현주와 정옥분(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도구로,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긍정적 정서 11문항, '나는 아이를 안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접촉추구 7문항,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등의 자기희생적 온정 10문항,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 된다' 등의 근접추구(분리불안) 4문항, '나는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이 가장 많이 간다' 등의 보호 5문항, '나는 내 자신이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등의 결속(일치성) 6문항, '나는 이 아이에게 무관심한 편이다' 등의 냉담 4문항,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등의 기대감 3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척도의 하위요인을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영아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4) 어머니 우울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그리고 양병창(2001)이 번안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우울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비진단적인 선별 도구에 해당한다(윤서영, 임재형, 한창수, 2012; Demirchyan, Petrosyan, & Thompson, 2011). 이 척도는 그간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타당화 되었으며(문수재 등, 1991; 전경구, 이민규, 1992; 조맹제, 김계희, 1993),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등(2001)이 기존의 번안된 한글판 척도를 통합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ES-D의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을 빈도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한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 척도의 경우 25점을 확정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의 절단점으로, 16점을 추정 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의 절단점으로 사용하는 반면(박준혁, 김기웅, 2011), 한국판 CES-D는 절단점으로 서구보다 낮은 21점과 13점을 사용한다(Cho & Kim,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0점~12점을 정상, 13점~20점을 경도우울, 21점 이상을 중도우울로 구분하여, 3개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 5)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기본적으로 영아의 월령, 성별 및 출생 순위, 부모의 연령, 직업 및 학력을 조사하였다. 이 외에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되는 신입원아 여부, 타 어린이집 이용 경험, 가정 내 주 양육자, 그리고 1일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 6) 어린이집 특성

영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기관 및 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기



관 특성 변인으로는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과 설립 유형이 있으며, 반 특성 변인으로는 연령(0세반, 1세반, 2세반) 및 혼합연령 여부, 반 정원, 영아 대 교사 비율과 같은 구조적 특성 이외에 담임교사의 연령, 경력(총 경력 및 영아반 교사 경력),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린이집 신입 영아의 적응을 평가하는 담임교사와 영아의 연구 참여를 동의하고 관련 특성을 보고하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위 어린이집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구체적으로 IRB 승인과 계획된 연구 도구를 이용한 예비조사를 완료한 후, 2019년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임의선정된 어린이집을 접촉하여, 연구 동의를 확보한 어린이집에 한해 2월 중에 실시되는 신입 원아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맞춰 어린이집에 방문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연구 협조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후, 3월 신학기에 앞서 반별 담임교사 배치가 종료된 시점에서 교사의 동의를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가 담당하는 반의 영아 가정에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가 포함된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어머니용 설문조사를 완료한 가정의 영아에 한해 담임교사가 해당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평정하였다.

영아의 적응 수준 평정은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1회차 적응 평정을 4월 첫째 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통상 보호자와의 분리 기간을 최소 5일, 적응 프로그램을 2주간 진행하며(김명순 등, 2013), CASIT를 이용한 적응 행동 평정은 2주간의 관찰이 요구되므로, 신학기 시작 후 적응과 관찰에 소요되는 1개월 시점인 4월 첫째 주를 어린이집 적응 수준의 초기치로 정하였다. 이에 4월 1주차부터 한 달 간격으로 6월까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여, 5월 첫째 주와 6월 첫째 주에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하위차원별로 어떠한 변화하며, 변화 궤적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별로 서로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응의 하위차원별 평균을 산출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연구문제 1).

다음으로 사용된 방법은 개인별로 반복측정된 값을 이용해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루어진 변화 추이의 개별 회귀선을 예측하는 성장혼합모형이다. 이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반복측정된 적응 수준 추이의 궤적을 추정한 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로 각기 다른 궤적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지를 파악하였다(연구문제 2).

세 번째로는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로 파악된 변화 궤적의 집단

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특유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탐색하였다(연구문제 3).

마지막으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탐색된 개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추이 유형 결과를 기초로, 각각 분류된 적응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영아의 기질, 어머니-영아 애착, 어머니 우울, 그 외 영아와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관 특성 중 서로 다른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4).

이 외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변인별로 평균, 표준편차, 내적합치도와 같은 주요 기술적인 통계 산출 등과 같은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2.0과 Mplus 8.3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변화 추이

집단생활 적응, 긍정적 정서, 기본생활습관, 활동성/흥미 및 또래상호작용은 모두 1차에서 3차까지 점차 점수가 증가하여, 학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모든 영역에서 적응적인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하위차원의 경우 4월초인 1차 시점에서는 3.30에서 3.85까지 모두 보통 수준인 3점대였던 것에 반해, 6월초인 3차 시점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활동성/흥미의 경우 평균 점수가 4점을 상회하여 적응을 잘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편, 부적응에 해당하는 부정적 행동의 평균은 1차 2.42점, 2차 2.43점, 3차 2.38점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변화 수준은 매우 미미하였다(표 2 참조).

표 2.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420)

구분	1차	2차	3차
집단생활적응	3.30(.85)	3.48(.80)	3.69(.80)
부정적 행동	2.42(.87)	2.43(.86)	2.38(.84)
긍정적 정서	3.85(.78)	4.00(.73)	4.17(.69)
기본생활습관	3.75(.72)	3.87(.67)	3.97(.63)
활동성/흥미	3.68(.66)	3.87(.63)	4.03(.65)
또래상호작용	3.42(.67)	3.63(.69)	3.80(.67)

주. 5점 리커트 척도의 결과임.

#### 2.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변화 궤적의 잠재계층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분석을 사

용하여, 변화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계층의 집단의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하나씩 추가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정보준거지수에 해당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분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Entropy 지수, 모형 비교를 위한 LMR-LRT 검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잠재계층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AIC와 BIC 값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모형이 복잡할수록 더 감소하므로 요인분석에서 스크리 도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처럼 수치의 변화를 보면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노언경, 홍세희, 2012).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우수, 0.7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수용 가능하다(Clark, 2010; Collins & Lanza, 2010).

첫 번째로, 집단생활적응의 모형 적합도의 경우 Entropy 지수는 모든 집단이 양호한 편이었으며, LMR-LRT는 2개, 3개 및 4개 집단 모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IC와 BIC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특히 2개 집단의 감소폭이 매우 크고, 3개 집단 또한 일정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집단에서의 감소는 미미하였다. 이에 2개 집단과 3개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별 사례 수를 살펴본 결과, 3집단의 경우 가장 집단의 크기가 9%인 37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인 모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하위차원인 부정적 행동은 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C와 BIC의 값은 완만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Entropy 지수는 모든 집단에서 0.8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LMR-LRT의 경우 2개 집단 모형과 4개 집단 모형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 두 모형의 집단별 사례수를 살펴본 결과, 4개 집단 모형에서 가장 작은 사례수로 구성된 경우가 13%에 해당하는 51명으로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이 집단의 경우 부정적 행동의 평균 점수가 3.65부터 3.87로, 다른 집단에서는 미약한 수준에서 나타난 방해, 공격 등의 행동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에 해당하여, 4개 집단 모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번째로 긍정적 정서의 경우, Entropy 지수와 모든 집단에서 우수하였으며, LMR-LRT 또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하였다. 한편 집단 수 증가에 AIC와 BIC의 값은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3개 집단 모형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4개 집단 모형과 5개 집단 모형은 사례 수가 가장 작은 집단이 3%인 13명에 불과하여 부적절한 반면, 3개 집단 모형은 16%로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AIC 및 BIC의 결과와 종합하여, 3개 집단 모형을 선정하였다.

네 번째 하위차원인 기본생활습관은 AIC와 BIC의 경우 수치가 점차 낮아졌으며, Entropy 지수 또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LMR-LRT는 4집단부터 유의미하지 않아 2집단과 3집단 모형을 중심으로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3집단 모형의 경우, 가장 낮은 사례 수의 비율이 16%로 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3집단 모형의 집단 중 2개 집단이 평균이나 추이에서 명료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 서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보기 어려웠다. 반면 2집단 모형은 두 집단 간에 비교적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된 바, 2개 집단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다섯 번째로, 활동성/흥미는 AIC, BIC 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Entropy 지수는 모두 적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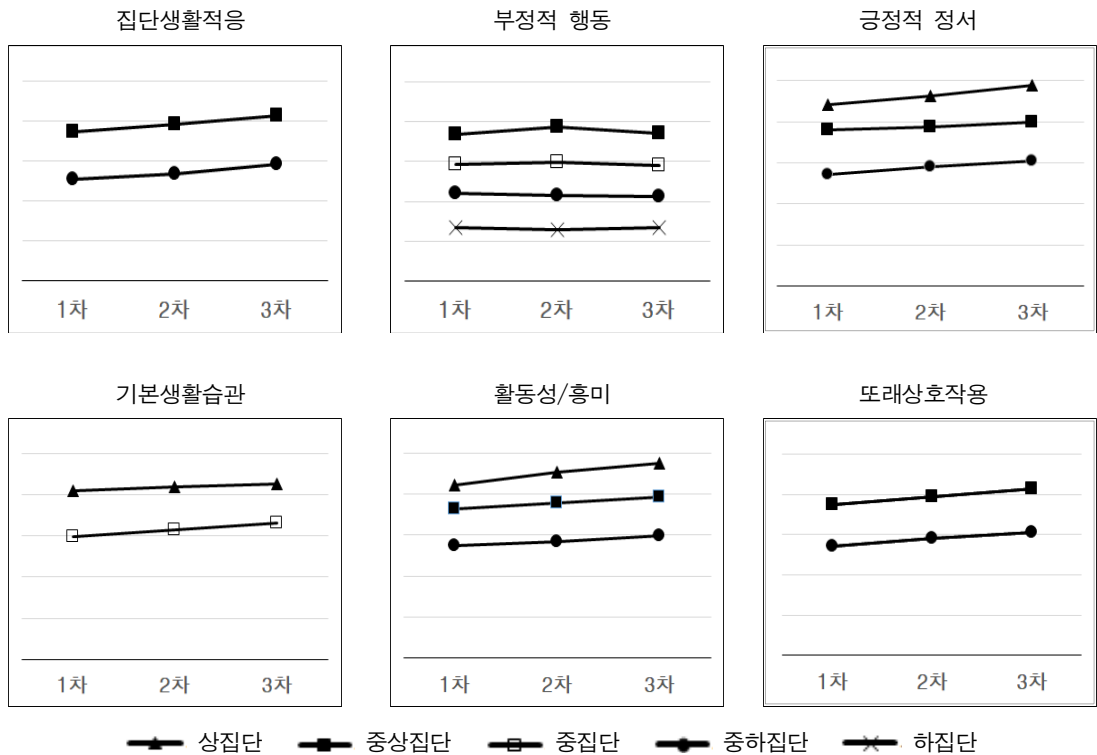
LMR-LRT p-value는 4집단 모형에서 .205로 산출되어 적절하지 않았으며, 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볼 때 유의한 3개 모형 중 3개 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 하위차원인 또래상호작용의 경우, AIC, BIC, Entropy 지수 모두 다른 하위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 수가 많을수록 적절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반면 LMR-LRT은 2개 집단 모형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나타나, 2개 집단이 최적의 분류로 판단되었다.

표 3.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집단 분류 기준

잠재계층 수	AIC	BIC	Entropy	LMR-LRT p-value	Hierarchical ratio					
					1	2	3	4	5	
<b>집단생활적응</b>										
1	3079.106	3099.307	-	-	1.00					
<b>2</b>	<b>2616.024</b>	<b>2648.346</b>	<b>.815</b>	<b>.000</b>	<b>.63</b>	<b>.37</b>				
3	2436.068	2480.511	.854	.005	.41	.49	.09			
4	2322.487	2379.051	.865	.005	.46	.34	.08	.12		
5	2278.565	2347.250	.863	.061	.05	.29	.42	.13	.11	
<b>부정적 행동</b>										
1	3198.427	3218.628	-	-	1.00					
2	2633.968	2666.290	.815	.000	.54	.46				
3	2402.196	2446.639	.828	.102	.46	.27	.27			
<b>4</b>	<b>2280.111</b>	<b>2336.675</b>	<b>.851</b>	<b>.021</b>	<b>.13</b>	<b>.30</b>	<b>.21</b>	<b>.36</b>		
5	2239.049	2307.733	.870	.081	.03	.33	.20	.16	.27	
<b>긍정적 정서</b>										
1	2802.984	2823.185	-	-	1.00					
2	2324.175	2356.497	.852	.000	.74	.26				
<b>3</b>	<b>2047.253</b>	<b>2091.695</b>	<b>.906</b>	<b>.001</b>	<b>.38</b>	<b>.16</b>	<b>.46</b>			
4	1963.807	2020.371	.934	.000	.45	.03	.15	.38		
5	1920.639	1989.324	.885	.020	.27	.03	.12	.43	.15	
<b>기본생활습관</b>										
1	2590.681	2610.882	-	-	1.00					
<b>2</b>	<b>2192.324</b>	<b>2224.646</b>	<b>.797</b>	<b>.000</b>	<b>.67</b>	<b>.33</b>				
3	2008.631	2053.073	.816	.012	.27	.55	.18			
4	1940.238	1996.801	.853	.060	.24	.02	.21	.52		
5	1912.438	1981.122	.794	.306	.02	.25	.41	.14	.19	
<b>활동성/흥미</b>										
1	2477.315	2497.517	-	-	1.00					
2	2041.641	2073.963	.827	.000	.72	.28				
<b>3</b>	<b>1790.762</b>	<b>1835.205</b>	<b>.879</b>	<b>.017</b>	<b>.30</b>	<b>.54</b>	<b>.16</b>			
4	1716.536	1773.099	.863	.205	.06	.22	.49	.23		
5	1666.218	1734.903	.870	.000	.01	.12	.44	.22	.22	
<b>또래상호작용</b>										
1	2602.232	2622.433	-	-	1.00					
<b>2</b>	<b>2175.033</b>	<b>2207.355</b>	<b>.822</b>	<b>.001</b>	<b>.69</b>	<b>.31</b>				
3	2025.817	2070.260	.839	.102	.07	.54	.39			
4	1927.174	1983.737	.830	.076	.17	.28	.05	.49		
5	1859.504	1928.189	.850	.104	.29	.46	.08	.16	.01	

이상과 같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차원별로 분류된 잠재계층의 추이를 도식화한 것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하위차원 중 부정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차원에서 영아의 적응 점수는 학기 중반이 됨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행동은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집단보다는 2차시에 소폭 감소 또는 증가하다가 3차시에 1차시의 수준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위집단별 각각의 집단명을 차수에 따른 상승, 하강 또는 유지 정도가 아닌 전반적인 적응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주. 세로축의 단위는 0점~5점임.

그림 1.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집단 추이

이상과 같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차원별로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을 적응 점수와 각 계층의 사례 수를 중심으로 종합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영아 어린이집 적응 하위차원별 집단 유형의 평균 및 사례 수 (N = 420)

구분	n(%)	1차	2차	3차
<b>집단생활적응</b>				
계층 1. 중상집단	263(62.62)	3.74(.60)	3.92(.48)	4.15(.49)
계층 2. 중하집단	157(37.38)	2.55(.68)	2.68(.56)	2.92(.61)
<b>부정적 행동</b>				
계층 1. 중하집단	152(36.12)	2.21(.41)	2.16(.27)	2.13(.39)
계층 2. 중집단	127(30.24)	2.92(.56)	2.98(.35)	2.90(.43)
계층 3. 하집단	90(21.43)	1.36(.35)	1.29(.26)	1.34(.35)
계층 4. 중상집단	51(12.21)	3.67(.66)	3.87(.40)	3.70(.44)
<b>긍정적 정서</b>				
계층 1. 중상집단	196(46.67)	3.80(.51)	3.88(.41)	3.99(.25)
계층 2. 상집단	156(37.14)	4.41(.56)	4.63(.43)	4.88(.20)
계층 3. 중하집단	68(16.19)	2.71(.57)	2.90(.46)	3.05(.39)
<b>기본생활습관</b>				
계층 1. 상집단	293(69.76)	4.09(.50)	4.19(.45)	4.27(.45)
계층 2. 중집단	127(30.24)	2.97(.51)	3.15(.52)	3.31(.48)
<b>활동성/흥미</b>				
계층 1. 중상집단	234 (55.71)	3.65(.45)	3.79(.31)	3.93(.29)
계층 2. 상집단	123 (29.29)	4.23(.45)	4.54(.34)	4.76(.25)
계층 3. 중하집단	63 (15.00)	2.75(.54)	2.85(.38)	2.99(.44)
<b>또래상호작용</b>				
계층 1. 중상집단	289 (68.81)	3.74(.46)	3.95(.46)	4.13(.41)
계층 2. 중하집단	131 (31.19)	2.72(.55)	2.91(.54)	3.06(.53)

주. 5점 리커트 척도의 결과임.

먼저 2개의 잠재계층으로 유형화된 집단생활적응은 보통 수준인 3점을 약간 상회하는 중상집단(계층 1)이 전체의 62.62%에 해당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수준은 개선이 되나 보통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중하집단(계층 2)은 37.38%로 추산되었다.

네 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된 부정적 행동의 경우, 부정적 행동이 보통 수준보다 상당히 낮아 미약한 수준에서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중하집단(계층 1)과 보통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중집단(계층 2)이 각각 36.12%와 30.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부정적 행동이 거의 없는 하집단(계층 3)은 21.43% 가량으로 추산된 반면, 3점을 상회하여 빈번하게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중상집단(계층 4) 또한 12.21%로 산출되어, 부정적 행동의 경우 개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는데, 긍정적 정서가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중상집단

(계층 1),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상집단(계층 2),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었던 긍정적 정서가 보통 수준까지 개선되는 중하집단(계층 3)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중상집단은 46.67%로 거의 반수에 가까웠으며, 상집단 또한 37.14%로, 정서상태가 긍정적인 영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장 적응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하위차원에 해당한다. 잠재계층은 2개로 나타났는데, 1차부터 3차까지 4점을 상회하는 상집단(계층 1)이 69.7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계층 2는 초기에 보통 수준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기본생활습관의 적응 수준이 3.31점까지 상승하였으며, 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된 활동성/흥미의 경우, 과반에 해당하는 영아가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중상집단(계층 1)에 해당하였다. 한편 상집단(계층 2)은 29.29%, 보통 수준 미만의 중하집단(계층 3)은 15.0%로 추산되어, 적응 수준이 높은 영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85% 가량으로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또래상호작용은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4점 이상까지 개선되는 중상집단(계층 1)과 보통 수준 미만에서 보통 수준까지 개선되는 중하집단(계층 2)으로 유형화되었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의 비율은 각각 68.81%와 31.19%로 보고되었다.

### 3.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잠재계층

앞서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개별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계층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석되었다. 이에 각 영아가 하위차원별로 해당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준거지수, Entropy 지수, LMR-LRT 검정 결과를 기초로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정보준거지수를 살펴보면 AIC와 BIC는 잠재계층 수가 4개로 증가할 때 까지 감소하다가 5개가 되었을 때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C는 잠재계층수가 3개로 증가할 때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보준거지수가 집단 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보준거지수에 근거한 잠재계층 수는 3개인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인 LMR-LRT의 경우, 2계층과 3계층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준인 분류의 질을 타나내는 Entropy의 경우 잠재계층 수가 3개와 4개인 경우 .80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그 중 잠재계층수가 3개일 때 .88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분류 기준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 수를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잠재계층 분류 기준

구분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5개
AIC	4055.614	<b>3974.303</b>	3931.193	3934.791
BIC	4140.452	<b>4103.586</b>	4104.932	4152.966
LMR-LRT p-value	.001	<b>.000</b>	.987	.996
Entropy	.785	<b>.883</b>	.842	.794
Hierarchical ratio				
1	.683(287)	<b>.588(247)</b>	.405(170)	.126( 53)
2	.317(133)	<b>.167( 70)</b>	.210( 88)	.248(104)
3	-	<b>.245(103)</b>	.131( 55)	.255(107)
4	-	-	.255(107)	.105( 44)
5	-	-	-	.267(112)

주. 괄호 안은 계층별 사례 수임.

다음의 표 6에는 최종적으로 분류된 각각의 영아 어린이집 적응 잠재계층에 적응의 하위차원 유형별로 사례수와 비율이 어떠한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다른 잠재계층에 비해 전반적인 적응 수준이 높았는데, 집단생활적응의 경우 중상집단에 99.2%에 달하는 대부분의 영아가 속해있고, 부정적 행동의 경우 2/3 가량이 하집단과 중하집단에 속했다. 긍정적 정서와 활동성/흥미는 상집단과 중상집단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하였으며, 기본생활습관과 또래상호작용 또한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즉, 이 계층은 어린이집 생활에 순응하고 잘 적응하는 영아가 대부분인 집단으로, ‘순응 및 긍정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영아는 전체 영아 중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전체의 16.7%의 영아가 속하였다. 이 계층의 경우, 거의 전수에 해당하는 영아가 또래상호작용 중하집단에 속하였으며, 집단생활적응 또한 74.3%가 중하집단에 해당하였다. 또한 긍정적 정서와 활동성/흥미는 상집단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무하거나 매우 낮은 반면, 중하집단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상집단과 하집단의 비율이 비슷하였는데, 48.6%의 하집단은 다른 잠재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계층은 낮은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보이며, 시간이 흘러도 처음의 적응 수준의 개선 없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여, ‘부적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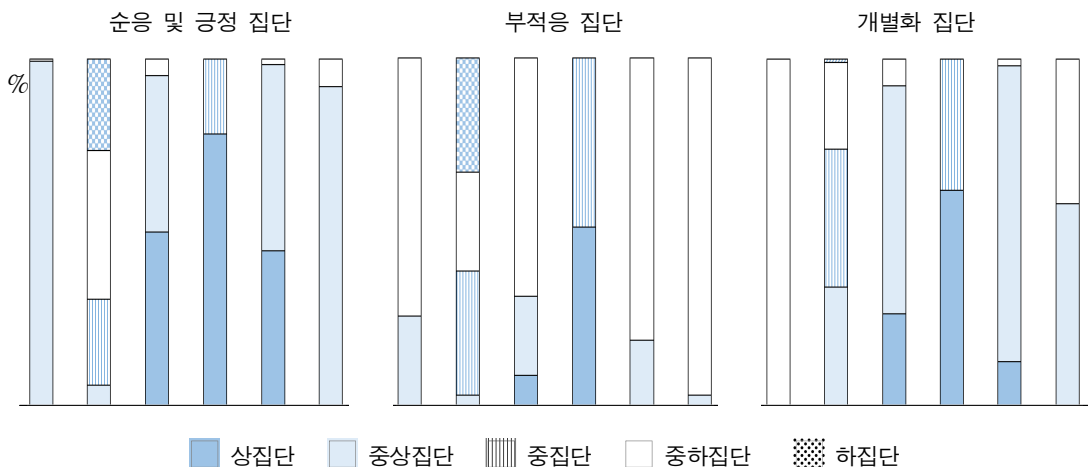
세 번째 잠재계층은 부정적 행동의 35.7%, 긍정적 정서의 66.0%, 활동성/흥미의 85.4%가 중집단에 속하였으며, 또래상호작용 또한 중상집단과 중하집단이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는 등 대부분의 하위차원에서 중집단 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기본생활습관의 경우 62.1%가 상집단에 해당하는 반면, 집단생활적응은 모든 영아가 낮은 수준에 속한 것이다. 즉, 계층 3에 해당하는 영아는 적응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이며, 식사, 수면 등의 일상생활 리듬 또한 규칙적이나 어린이집의 규칙을 지키거나 맥락에서 요구되는 조절적인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체 영아 중 24.5%가 해당하는 계층 3은 ‘개별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잠재계층의 하위차원별 분포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표 6. 잠재계층에 따른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 유형별 사례 수 및 비율 (N = 420)

하위차원	유형	순응 및 긍정 집단	부적응 집단	개별화 집단
집단생활적응	중상집단	245( 99.2)	18( 25.7)	-
	중하집단	2( .8)	52( 74.3)	103(100.0)
부정적 행동	중상집단	14( 5.7)	2( 2.8)	35( 34.0)
	중집단	61( 24.7)	25( 35.7)	41( 39.8)
	중하집단	106( 42.9)	20( 28.6)	26( 25.2)
긍정적 정서	하집단	66( 26.7)	23( 32.9)	1( 1.0)
	상집단	123( 49.8)	6( 8.6)	27( 26.2)
	중상집단	112( 45.3)	16( 22.9)	68( 66.0)
기본생활습관	중하집단	12( 4.9)	48( 68.6)	8( 7.8)
	상집단	193( 78.1)	36( 51.4)	64( 62.1)
활동성/흥미	중집단	54( 21.9)	34( 48.6)	39( 37.9)
	상집단	110( 44.5)	-	13( 12.6)
	중상집단	133( 53.8)	13( 18.6)	88( 85.4)
또래상호작용	중하집단	4( 1.6)	57( 81.4)	2( 1.9)
	중상집단	227( 91.9)	2( 2.9)	60( 58.3)
계	중하집단	20( 8.1)	68( 97.1)	43( 41.7)
		247(100.0)	70(100.0)	103(100.0)



주. 가로축의 항목은 집단생활적응, 부정적 행동, 긍정적 정서, 기본생활습관, 활동성/흥미, 또래상호작용의 순으로 제시됨.

그림 2. 잠재계층에 따른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 유형별 분포

#### 4.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잠재계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와의 애착, 어머니의 우울이 영아 어린이집 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순응 및 긍정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응 집단과 개별화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영아와 기관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모형에 포함하였다(표 7 참조).

먼저, 영아의 기질은 사회성 수준이 높고 정서성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적응 집단보다 순응 및 긍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활동성은 개별화 집단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활동성 수준이 높은 영아는 순응 및 긍정 집단보다는 개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과 어머니 우울 수준은 영아기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 유형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 중 영아의 성별과 월령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아의 성별은 개별화 집단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여,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순응 및 긍정 집단보다 개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월령의 경우 부정적 집단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져, 월령이 높아질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순응 및 긍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인구학적 배경 변인 중 출생순위, 재원아 여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어린이집 적응 유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적 배경 변인 이외에 기관 특성으로 투입된 어린이집의 설립유형과 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라도 순응 및 긍정 집단에 비해 부적응 집단 또는 개별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7. 영아 어린이집 적응 유형의 예측변인 (N = 420)

구분	부적응 집단		개별화 집단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인구학적 배경				
성별(vs 여아)	.54(.29)	1.72	1.09(.26)***	2.96
월령	-.09(.03)**	.91	-.04(.02)	.96
출생 순위(vs 둘째 이상)	.10(.30)	1.11	.05(.26)	1.05
신입여부(vs 재원아)	.33(.37)	1.39	.00(.31)	1.00
어머니 취업여부(vs 취업)	.51(.32)	1.66	.32(.28)	1.38
기관 특성				
정부지원시설(vs 미지원시설)	.17(.30)	1.18	.07(.26)	1.07
교사 대 아동 비율	.15(.11)	1.16	.05(.09)	1.05
영아 기질				
사회성	-.69(.29)*	.50	-.29(.26)	.75
정서성	.72(.26)**	2.06	.39(.21)	1.48
활동성	.01(.27)	1.01	.77(.25)**	2.15

표 7. 계속

구분	부적응 집단		개별화 집단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어머니 애착	.02(.02)	1.02	.02(.01)	1.02
어머니 우울(vs 중증우울)				
정상	-.41(.46)	.67	-.72(.39)	.49
경도우울	-.72(.52)	.49	-.85(.44)	.43
Chi-square(df)	82.80(28)***			
-2log Likelihood	717.02			
Nagelkerke's Pseudo R <sup>2</sup>	.21			

\* $p < .05$ , \*\* $p < .01$ , \*\*\* $p < .001$ .

주1. 순응 및 긍정 집단을 기준으로 한 결과임.

주2. 영아의 연령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연령임.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학기 초부터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적응의 변화 궤적을 적응의 하위차원별로 탐색하고, 그 궤적을 유형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집 적응의 추이와 수준에 따른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3개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집단을 설명해주는 예측 변인을 탐색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6개 하위차원 중 집단생활 적응, 긍정적 정서, 기본생활습관, 활동성/흥미, 또래상호작용은 모두 학기 초부터 중반까지 이르는 동안 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정적 행동 차원은 점수가 점차 감소하여, 어린이집의 신학기가 시작된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영아가 적응적으로 변화하였다. 어린이집 적응이 낮은 환경에서 부모의 부재를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볼 때(이용주, 2004), 전반적인 적응 수준이 높아진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경향이다. 그러나 학기 초부터 학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적응 수준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대부분 적응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주양육자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1개월가량을 적응에 초점을 두거나(Ahnert, Gunnar, Lamb, & Barthel, 2004; Cryer et al., 2005), 적응 프로그램 시기와 적응이 완료된 학기 중반의 차이를 본 선행연구에 비해(서소정, 2009; 신희남, 조복희, 2012),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행동이 특별한 정체 없이 지속적으로 적응적이 되어 감을 시사한다.

특히 영아의 적응이 6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어린이집에 적응적이 되어 가는 것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거나 성인 또는 맥락의 요구를 잘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놀이와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며 긍정적

인 정서 표현을 빈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이 단지 새롭고 낯선 맥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관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Bronfenbrenner(1994)는 생애 초기인 영아들 또한 당면한 환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 반응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성은 이후의 심리발달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아가 어린이집으로의 전이라는 발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균형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별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적응적으로 변화하는 추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적응 집단은 거의 없이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집단과 보통 수준 이하의 집단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또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아, 적응적인 영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성장혼합모형의 결과 적응적인 영아의 비율이 하위차원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집단생활적응은 모든 시점에서 4점을 초과하는 상집단이 유형화되지 않았다. 반면, 긍정적 정서와 활동성/흥미는 중간 수준의 집단 없이 소수의 중하집단만 존재하며, 상집단의 점수가 3차 시점에 거의 5점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행동은 점차 점수가 낮아져 적응적인 추이를 보인 집단은 4개 집단 중 1개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집단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긍정적 정서와 활동성/흥미 차원이 매우 적응적으로 평가된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학기 시작 후 3개월과 6개월에 추적하여 관찰한 Fein, Gariboldi 그리고 Boni(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Fein 등(1993)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활동성/흥미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빈도는 학기 초와 학기 중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Fein 등(1993)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웃음, 미소 등의 표현 빈도로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긍정적 정서는 기쁨의 표현 외에 성인 또는 또래에게 반가움 또는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긍정적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긍정적 정서가 기질의 일종으로 비교적 일관적인 성향을 보이는 기분(mood)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전이 중인 영아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보이는 정서 표현에 가까우며, 이러한 정서 표현은 긍정적인 특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집단생활적응 차원의 경우 적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영아의 경우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집단생활에 대한 순응성 정도가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나리와 윤현정(2016)은 집단생활적응 차원이 영아의 관점이 아닌 성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생활에 순응하는 것이 개별 영아의 발달에 유익이 되는 행동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집단생활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오히려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자기에 대한 인식과 표현, 자율성에 근거한 행동의 빈도나 요구가 낮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집단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영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성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동 등을 보일 때, 교사가 이를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보다 발달적 특성에 따른 행동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부정적 행동의 경우 중집단과 중상집단의 비율이 반수 가량이었으며, 이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들은 5월초까지 공격성 등의 부정적 행동이 증가하다가 6월에 이르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세와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3차례 측정한 이상순과 이완정(2019)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은 5점 척도의 평균이 4월에 3.52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였다가 6월과 7월에 2.63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 맺기를 처음 시작하는 영아가 또래를 방해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던지기나 소리 지르기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학기 중반에 이르러 전반적인 적응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부정적 행동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의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인식을 연구한 김미로(2014)에 따르면, 교사가 평가하는 영아의 부적응 행동은 보호자와 분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기, 음식 거부하기, 낮잠 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교사 또는 또래와의 접촉을 거부하기, 퇴행 행동 보이기 등으로, 공격성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은 적응 실패의 지표로 인식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은 적응의 하위차원별로 달라지므로, 특정 하위차원의 수준이 높은 것이 반드시 어린이집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조화롭고 균형 있는 상태로 안정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에 따라서 영아의 적응의 수준과 행동의 빈도를 다르게 기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차원별 궤적 유형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총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반의 영아가 어린이집 생활에 순응하고 잘 적응하는 집단으로 순응 및 긍정집단으로 나타났으며, 1/4 가량은 집단생활적응 수준은 낮으나 그 외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적응을 보인 개별화 집단에 해당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적응 수준이 낮고 고립된 부적응 영아는 전체의 약 16.7% 정도였다.

먼저 부적응 집단에 해당하는 영아는 순응 및 긍정 집단에 비해 집단생활적응 및 기본생활습관의 적응 수준이 낮고, 긍정적인 정서 및 활동에 대한 흥미를 덜 보이며, 또래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 수준은 낮았다. 특히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부적응 집단에 비해 순응 및 긍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보다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행동 차원의 경우 부적응 집단과 순응 및 긍정 집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유아의 경우 공격적이거나 방해적인 문제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는 경우 부적응적인 것으로 평가되나(황혜정, 2019; Kaiser & Rasminsky, 2012; Wicks-Nelson & Israel, 2001), 영아의 소리 지르기, 방해하기, 던지기, 부수기 등의 공격적인 행동은 어린이집이라는 맥락에 대한 적응 정도와는 별개로 영아 자신의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의 어린이집 부적응을 유아기처럼 부적절하거나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발달적·기질적으로 집단 맥락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개별화 집단은 순응 및 긍정 집단에 비해 집단생활적응 수준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며 또래와 상호작용 또한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화 집단에 속한 영아는 기본적으로 영

아기에 애착대상인 주양육자와 떨어져 집단 맥락에 처음 놓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큰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집단의 요구나 기대에 반응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는 등의 행동 또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일정 수준만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별화 집단에 속한 영아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거나, 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과를 자발적으로 따르고, 교사의 간단하고 합리적인 지도에 대해서 순응적일 때, 교사가 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응대하여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결정요인으로 예상된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애착 및 우울 중 영아의 기질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영아의 정서성이 높고 사회성이 낮을수록 순응 및 긍정 집단보다는 부적응 집단에, 활동성이 높은 경우 개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 동안 순한 기질에 비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초기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적응 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질의 하위차원은 연구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기질의 하위차원 중 접근성(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규칙성(김기홍, 이주리, 2010), 사교성(서소정, 2009), 사회성 및 주의집중성(이경남, 유혜선, 2014), 반응 강도(김진아, 권민균, 2005), 부정적 정서성(Albers, Beijers, Riksen-Walraven, Sweep, & de Weerth, 2016), 긍정적 정서 수준(신희남, 조복희, 2012)이 연구에 따라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각각 밝혀진 바 있다. 이같이 영아 기질의 하위차원별 수준과 어린이집에 적응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와는 달리 적응적인 집단과 그 외 집단을 비교한 본 연구 결과 정서성, 사회성 및 활동성 모두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영아의 기질이 어린이집 적응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활동성은 느린 기질을 판별하는데 사용될 뿐 까다로운 기질과 순한 기질을 판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하위차원으로(Gordon, 1981), 선행연구에서도 어린이집 적응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바가 없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개별화 집단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질상의 활동성이 영아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데 새롭게 주목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결정요인 중 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예측 변인으로 어머니의 애착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인 신희남과 조복희(2012)의 연구 결과와 일관되며,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기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인 최근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문애현, 조안나, 2018;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이같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또는 분리불안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는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는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영아의 적응과는 별도로 부모의 적응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최근 차효성, 고지현, 이경주, 최애리 그리고 이진정(2016)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분리가 자녀의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어머니의 분리불안과는 차별화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사가 어머니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수록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낮출 수 있으며(서정아,

안선희, 박정은, 2019),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김경숙, 김유환, 2011),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일과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소개, 개별 영아의 적응 과정에 대한 공유와 같이 신뢰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부모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또한 영아기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 유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간 어머니의 우울이 영아기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Cummings & Davies, 199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따라서 어머니 우울의 영향력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까지 이어지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로운 것으로, 어머니 우울의 직접효과 외에 우울의 효과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가외변인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빈곤, 부부갈등, 가정내 폭력과 같은 위험요인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어(National Research Council et al., 2009), 어머니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을 가진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간 무상보육 이후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아동학대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 또한 함께 증가하여,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또한 재조명되어 왔다. 성장혼합모형 및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가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이 단순히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영아가 자신만의 적응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종전의 변수 중심(variable-centered) 접근과는 달리 모집단이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인의 집단으로 섞여 있다고 가정하여, 모집단의 추론을 위해 범주형 잠재변수로 하위 집단의 분류하는 혼합모형(mixture model)을 이용하는 대상 중심(person-centered) 접근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Muthén & Muthén, 2000). 즉, 본 연구에서 밝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유형은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영아가 점차 적응적인 경향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개별 영아 수준에서는 자신만의 적응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학기 초부터 추적을 시작한 적응 추이를 학기말까지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어린이집 맥락에서 교사와의 애착이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아의 경우 기관 부적응으로 인한 어린이집 퇴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최현자, 1994),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소한 영아가 제외되어 전반적인 적응의 경향성이 상승 추이인 것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혼합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었던 0세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영아 적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 맥락인 어린이집에서 적응적으로 생활하게 되며, 이러한 적응의 방식과 유형은 질적으로 다른 개인 집단으로 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린이집 적응의 유형에 가장 영

향력이 큰 변인은 영아 자신의 기질적 특성이므로, 학기 초부터 각 영아의 행동 및 어린이집 이용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적응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원 (2002). 치료놀이를 통한 부적응 행동 유아의 사회적 관계 증진 과정: 탐색에서 성장까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수연 (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 김유환 (2011). 유아-교사 간 상호 인식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유아교육학논집**, **15**(4), 141-160.
- 김기홍, 이주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47-65.
- 김명순, 김의향, 이삼범, 박초아, 이미화, 이한영 등 (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서울: 보건복지부.
- 김기영 (2000). 태교관점 임부교실이 모아에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로 (2014). 만 1, 2세 영아의 기관유형별 초기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의 실시현황과 교사의 인식 및 지도실태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진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3**(1), 19-34.
- 김영실, 손수민 (2014, 4).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4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김정민, 김지현 (2015).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159-170. doi:10.5934/kjhe.2015.24.2.159
- 김진아, 권민균 (2005). 영아의 애착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시설 초기 적응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2**(4), 177-189.
- 김한나, 서소정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 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김현주 (2011). 보육시설 적응프로그램의 개별실시에서 나타난 영아의 적응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고경필 (201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223-234. doi:10.5762/KAIS.2015.16.1.223
- 노언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 문수재, 이민준, 윤관수, 신승철, 이호영, 김만권 등 (1991).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



- 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4), 752-767.
- 문애현, 조안나 (2018).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4), 231-252. doi:10.20437/KOAECE23-4-10
- 박준혁, 김기웅 (2011). 한국의 우울증 역학에 대한 고찰. **대한의사협회지**, **54**(4), 362-369.
-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서미정, 김경연 (2010).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유형과 예측 요인: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아동학회지**, **31**(3), 83-97.
- 서소정 (2009). 영아의 보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발달, 기질,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 및 보육신념과 적응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59-288.
- 서정아, 안선희, 박정은 (2019).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99-110. doi:10.7466/JKHMA.2019.37.1.99
-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영아의 기질, 교사의 민감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37-53. doi:10.30528/jolss.2015.5.1.003
- 신나리, 윤현정 (2016). 교사용 영아 어린이집 적응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37**(6), 35-56. doi:10.5723/kjcs.2016.37.6.35
- 신현정, 박영주, 강현철 (2004). 산육기 어머니의 모애착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4**(3), 504-514.
- 신희남, 조복희 (2012). 어머니의 적응지원전략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29-55.
- 양숙경, 문혁준 (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 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31-146.
- 우현경, 홍용희 (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27**(1), 29-50.
- 유민아, 이주리 (2011).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양육태도가 영아의 보육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11**, 333-356.
- 유현숙, 고선옥 (2009).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7**(2), 17-34.
- 윤서영, 임재형, 한창수 (2012).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를 위한 임상평가 도구.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3**, 136-146.
- 이경남, 유혜선 (201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3), 165-190.
- 이연실, 이용우 (2016). 유아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1), 109-131.
- 이상순, 이완정 (2019).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관계의 조절효과: 수직적 전이집단과 수평적 전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21-36.

doi:10.14698/jkce.2019.15.02.021

- 이용주 (2004).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나타난 만1세 영아의 체험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69-193.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 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doi:10.18023/kjece.2008.28.3.003
- 장영숙, 조정에 (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 97-119.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차영숙 (2009). 영아들의 초기 사회적 삶에 대한 이야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27-257.
- 차효성, 고지현, 이경주, 최애리, 이건정 (2016).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 도구 개발 및 평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409-420. doi:10.5762/KAIS.2016.17.1.409
- 천희영 (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 최정선, 정가운 (2013). 12~14개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관찰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4), 79-101.
- 최향준, 최선녀, 임현주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의 사회·정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6**, 49-72.
- 최현자 (1994). 어린이집 개원과 운영에 관한 실천 연구: 새암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 62-84.
- 한국아동패널 (n. d.). **한국아동패널연구 3차년도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view.do?menu\\_idx=42&editMode=ADD%2CADD&board\\_idx=33363&manage\\_idx=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7](http://panel.kicce.re.kr/panel/board/view.do?menu_idx=42&editMode=ADD%2CADD&board_idx=33363&manage_idx=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rowCount=10&viewPage=7)에서 2018년 2월 5일 인출
- 황현주, 정옥분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3), 57-78.
- 황혜정 (2019).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과정 탐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199-218. doi:10.22251/jlccj.2019.19.8.199
- Ahnert, L., Gunnar, M. R., Lamb, M. E., & Barthel, M. (2004). Transition to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infant-mother attachment, negative emotion, and cortisol elevations. *Child Development*, **75**(3), 639-650. doi:10.1111/j.1467-8624.2004.00698-X
- Albers, E. M., Beijers, R., Riksen-Walraven, J. M., Sweep, F. C., & de Weerth, C. (2016). Cortisol

- levels of infants in center care across the first year of life: Links with quality of care and infant temperament. *Stress*, 19(1), 8-17. doi:10.3109/10253890.2015.1089230
- Becker, G., & Becker, C. (1994). The Maternal Behavior Inventory: Measuring the behavioral side of mother-to-infant attachmen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2(2), 177-193. doi:10.2224/sbp.1994.22.2.177
- Boer, F., & Westenberg, P. M. (1994).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uss and Plomin EAS Temperament Survey (parental ratings) in a Dutch sampl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3), 537-551. doi:10.1207/s15327752jpa6203\_13
- Bould, H. E., Joinson, C., Sterne, J. A., & Ricardo, A. (2013). The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 Factor analysis and temporal stability in a longitudinal co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628-633. doi:10.1016/j.paid.2012.11.010
- Bretherton, I., & Waters, E. (Eds.). (1985).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09).
- Bronfenbrenner, U. (1994). *Human ecology: Concepts and perspectiv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기조강연 논문, 서울.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Wiley.
- Campbell, S. B., Matestic, P., von Stauffenberg, C., Mohan, R., & Kirchner, T. (2007).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202-1215. doi:10.1037/0012-1649.43.5.1202
- Cho, M. J., & Kim, K. H. (1998). Us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in Kore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5), 304-310. doi:10.1097/00005053-199805000-00007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 Cryer, D., Wagner-Moore, L., Burchinal, M., Yazejian, N., Hurwitz, S., & Wolery, M. (2005). Effects of transitions to new child care classes on infant/toddler distress and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1), 37-56. doi:10.1016/j.ecresq.2005.01.005
- Cummings, E., & Davies, P.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1), 73-112. doi:10.1111/j.1469-7610.1994.tb01133.x
- Datler, W., Erekly-Stevens, K., Hover-Reisner, N., & Malmberg, L. E. (2012). Toddlers' transition to out-of-home day care: Settling into a new care environ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3), 439-451. doi:10.1016/j.infbeh.2012.02.007
- Demirchyan, A., Petrosyan, V., & Thompson, M. E. (2011). Psychometric value of the Center for

-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for screening of depressive symptoms in Armenian popul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3(3), 489-498. doi:10.1016/j.jad.2011.04.042
- Fein, G. G., Gariboldi, A., & Boni, R. (1993). The adjustment of infants and toddlers to group care: The first 6 month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1-14. doi:10.1016/S0885-2006(05)80095-X
- Fox, N. A., & Henderson, H. A. (1999). Does infancy matter? Predicting social behavior from infant temperament.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2(4), 445-455. doi:10.1016/S0163-6383(00)00018-7
- Gordon, B. N. (1981). Child temperament and adult behavior: An exploration of "Goodness of fi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3), 167-178. doi:10.1007/BF00709381
- Hedeker, D. (2004). An introduction to growth modeling.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215-23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ock, E., McBride, S., & Gnezda, M.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4), 793-802. doi:10.2307/1131019
- Kaiser, B., & Rasminsky, J. S. (2012).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responding effectively*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Kim, Y. H. (2017).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at four years of age: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Child Indicators Research*, 10(4), 1061-1078. doi:10.1007/s12187-016-9417-8
- Klein, H. A. (1991). Temperament and childhood group care adjustment: A cross-cultural comparis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2), 211-224. doi:10.1016/0885-2006(91)90008-9
- Marcus, J., Chess, S., & Thomas, P. (1972). Temperamental individuality in group car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 313-330. doi:10.1080/0300443720010304
- Mathiesen, K. S., & Tambs, K. (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 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3), 431-439. doi:10.1111/1469-7610.00460
- Mobley, C. E., & Pullis, M. E. (1991). Tempera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4), 577-586. doi:10.1016/0885-2006(91)90038-M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0.x
- National Research Council,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on Depression, Parenting Practices, &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2009).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in parents and parenting, child health, and chil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M. J. England, & L. J. Sim (Eds).

- Depression in parents, parenting, and children: Opportunities to improve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pp.119-182).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3), 269-306. doi:10.1016/S0885-2006(96)90009-5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Early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from 36 months through first grad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6(3), 345-370. doi:10.1016/S0163-6383(03)00035-3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2), 179-192. doi:10.1016/0885-2006(88)90021-X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y Measurement*, 1(3), 385-401. doi:10.1177/014662167700100306
- Thyssen, S. (2000). The child's start in day care cent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61(1), 33-46. doi:10.1080/0030443001610103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1).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아동기 행동장애**(정명숙, 손영숙, 양혜영, 정현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원판 1999).

논문투고: 19.12.20

수정원고접수: 20.01.21

최종게재결정: 20.02.03